

『東醫寶鑑』에 쓰여진 許浚 文章의 文法的 特性과 翻譯書의 誤謬 - 「湯液篇」을 中心으로 -

大邱韓醫大學校 韓方産業大學 韓藥材藥理學科²,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金容漢² · 金恩瑕¹

Study on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and fallacy of translation in the sentences of Donguibogam by Heo Jun - Focused on Tangaekpean(湯液篇) in Donguibogam 『東醫寶鑑』 -

¹Dept. of Herbal Medicinal Pharmacology, College of Department of Herbal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²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Kim Yong-han² · Kim Eun-Ha^{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look into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and find misinterpretations on the translation books.

1. Sentences characteristics

- 1) Lots of ellipses of grammatical parts can be found such as conjunction, postposition, particle, Coverb, and focus on the parts which has practical meaning such as noun, pronoun, verb, adjective in the sentences.
- 2) Some predicates are skipped in the later phrases which has contradictive concepts against them of former phrases.
- 3) Pure Korean word order is exposed especially in complement.

2. Translation fallacy

- 1) There is fallacy in the sentences omitted paratactic conjunction as follows ① mistranslation based on the wrong concept of the context between equal relation and subordinate relation. ② failure on setting up the period, ③ misunderstanding equal relation as cause relation.
- 2) Some singular phrases, which are condition relation, were analyzed as plural phrases in the sentences omitted connection conjunction.
- 3) Ellipses of postposition obstruct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modifier and modificand in some sentences.
- 4) Some cause relation phrases were translated as equality relation due to lack of recognition of ellipsis of coverbs.

key word : Dong-uibogam. conjunction. postposition. a particle in classical Chinese. Coverb. complement

* 교신저자 : 김은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ehkim@dhu.ac.kr, Tel : 053-770-2240.

접수일(2011년 10월 28일), 수정일(2011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2일)

I. 序 論

본고는 中國의 漢醫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韓醫學 발전을 위한 노력의 一環으로 저술된 것 중 1613 (光海君 5年)에 간행되어 韓醫學의 白眉라는 『東醫寶鑑』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과거 한의학에 종사한 이는 유학에 종사한 이들 보다 數가 적었고 또한 전문인으로 분류되었다. 한의학이라는 자연 과학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고 후학을 위해 저술한 책들은 그 들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저술됨으로 인해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東醫寶鑑』翻譯書에 대한 異見-湯液篇과 草部를 中心으로-”¹⁾에서는 기존의 번역서에서 주로 개개 단어들의 잘못된 번역을 지적 하였다. 본고는 계속된 연구의 일환으로 『東醫寶鑑』에서 許浚이 기술한 문장을 대상으로 품사 사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허준이 기술한 문장에서 품사 사용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해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오역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다.²⁾

이러한 연구는 『東醫寶鑑』을 처음 대하는 초학자에게 독해력 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재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차후 번역의 오류 방지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東醫寶鑑』·『湯液篇』이고, 연구 방법은 기존의 한문 문법학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제시한다. 논지의 전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번역문 모두를 수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인용한 기존의 번역서는 인용표시에서 제시된 번호로 대신하고 쪽수는 ‘p’로 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기존의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1) 金容漢·金永浩·金恩瑕, 『東醫寶鑑』翻譯書에 대한 異見-湯液篇과 草部를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第23卷-1號, 2010.1. pp.143-161.
2) 『東醫寶鑑』에 수록된 내용은 許浚이 모두 자신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견해를 수록한 부분에는 인용문헌의 표시가 없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미 간행되었던 醫書에서 발췌한 부분은 반드시 문장의 끝에 인용 문헌을 표시하였다. 대부분 자신의 견해는 문장의 앞부분에 기술하였고 인용한 것은 次順으로 정리하였다.

① 1966년. 南山堂. 『國譯增補 東醫寶鑑』³⁾
② 1994년. 大眾書館. 『한글完譯本 東醫寶鑑』⁴⁾
③ 2003년. 푸른사상. 『완역 東醫寶鑑』
④ 2005년. 여강. 『三次 改訂版 原文對譯 東醫寶鑑』⁵⁾
⑤ 2005년. 법인문화사. 『新編·對譯 東醫寶鑑』⁶⁾
⑥ 2005년. 동의보감출판사.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

고찰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接續詞의 省略
2. 助詞의 省略
3. 語氣詞의 省略
4. 介詞의 省略
5. 敘述語의 省略
6. 補語의 우리말 어순

II. 本 論

漢文의 品詞 중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는 名詞·代名詞·動詞·形容詞 등은 實辭라 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미약하며 주로 문법적인 작용을 하는 부속성분인 副詞·介詞·接續詞·助詞·語氣詞⁷⁾ 등은 虛詞라 한다.⁸⁾

『東醫寶鑑』에서 허준이 직접 쓴 문장들은 주요 성분에 속하는 實詞 위주로 기술하여 虛詞에 속하는 품사들은 많이 생략되었다. 주로 實詞 위주로 서술한 허준의 문장들은 인문과학 분야의 문장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차적으로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주로 서술하는 인문학과는 달리 자연과학은 어떤 현상을 究明하여 명료하게 기술하는 차이에서

3) 이 책의 발행처는 서울 소재 豊年社이고, 발행인은 洪鍾夏로 1966년 7월20일 인쇄하여 1966년 8월 1일에 발간하였고, 또 서울 소재 南山堂에서도 발행인 李周星이 1966년 8월 1일 초판 발행하고 1969년 8월 25일 增補版이 발행 되었다.
4) 이 책은 2008년 한글완역본으로 만든 사전식 동의보감 이란 책명으로 한국사전연구사에서 다시 출판하였다.
5) 이 책은 1994년에 출판한 것으로 三次 改訂版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와 저작권협약에 의해 출판된 것으로 되어있다.
6) 이 책은 1999년 출판한 對譯 東醫寶鑑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7) 품사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명칭과 분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8) 實詞를 實質語 虛詞를 關係語 혹은 形式語라고도 한다.

은 것이고, 2차적으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문장의 서술 趣向에 起因었다고 생각된다.

1. 接續詞의 省略

1) 並列接續詞의 省略

병렬접속사는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구, 문장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접속사이다. 병렬접속사가 연결한 전후 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서로 뒤바뀔 수 있고 뒤바뀐 뒤에도 문장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⁹⁾ 『東醫寶鑑』¹⁰⁾에는 병렬접속사가 대부분 생략된 특성이 있다.¹¹⁾ 병렬접속사 ‘與’·‘及’ 등은 주로 명사와 명사의 연결에 사용된다.

다음의 문장은 명사와 명사를 주로 연결하는 병렬 접속사가 배합되지 않아 역자에 따라 번역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 ① 【黃蘗】… 主五臟腸胃中結熱, 黃疸, 腸痔. 療泄痢, 女子漏下赤白, 陰蝕瘡, 殺疳蟲, 疥癬. 治目熱赤痛, 口瘡, 除骨蒸勞熱

… 오장과 장위 속의 물린 열·황달·장치(腸痔)를 주로 치료한다. 설사·이질·여자의 줄줄 흘러내리는 적백대하·음식창을 치료한다. 감충(疳蟲)을 죽이고 음과 버짐을(치료한다). 눈에 열이 있어 충혈 되고 아픈 것, 입안이 험 것을 치료한다. 골증노열(骨蒸勞熱)을 제거한다.

㉠ ……五臟의 腸胃와 中結을 다스리고 黃疸과 腸痔와 泄痢와 女子의 漏下赤白과 陰蝕瘡를 다스리고……(p.1216)

㉡ ……오장(五臟)의 장위(腸胃)와 중결(中結)·황달(黃疸)·장치(腸痔)·설리(泄痢)·여자의 누하적백(漏下赤白)·음식창(陰蝕瘡)을 치료하고……(p.1443)

㉢ ……5장과 장위(腸胃) 속에 열이 맺힌 황달(黃疸)과 장치(腸痔)를 주치하고 이질설사[泄痢]와 여자의 적백 누하

(漏下), 음식창(陰蝕瘡)을 낮게 한다……(p.377)

㉣ ……오장과 장위(腸胃) 속에 물린 열과 황달, 장치(腸痔) 등을 주로 없앤다. 설사와 이질, 적백대하, 음식창(陰蝕瘡)을 낮게 하고,…… (p.3054)

㉤ ……오장(五臟)과 장위(腸胃) 속에 맺힌 열과 황달(黃疸)·장치(腸痔) 등을 치료하고, 설사(泄瀉)와 이질(痢疾)·적백대하(赤白帶下)·음식창(陰蝕瘡)을 치료하며,……(p.3579)

㉥ ……오장과 장위(腸胃)에 열이 맺힌 것과 황달·장치(腸痔)에 주로 쓴다. 설사·이질과 여자의 붕루·적백대하·음식창을 치료한다……(p.2218)

원문의 “五臟腸胃中結熱”에 虛詞(關係語)를 배합하면 “五臟與腸胃中之結熱(오장과 장위 속의 맺힌 열)”이 된다. ㉠과 ㉡은 “五臟之腸胃與中結熱(오장의 장위와 중결열)”로 해석하여 ‘五臟’은 ‘腸胃’의 종속관계로 ‘腸胃’와 ‘中結熱’을 대등관계로 보았고, ㉢은 “五臟與腸胃中結熱之黃疸(5장과 장위 속에 열이 맺힌 황달)”로 해석하여 ‘五臟’과 ‘黃疸’을 대등관계로 보고 ‘腸胃中結熱’을 ‘黃疸’의 수식어로 보았다.

이러한 誤譯은 接續詞 ‘與’와 冠形格 助詞 ‘之’가 생략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해서이다.

② 【韓藟】處處有之, 葉似薯蕷蔓生, 二月八月採根暴乾. 곳곳에서 그것이 자라는데 잎은 마와 비슷하고 덩굴이 생긴다. (음력)이월과 팔월에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린다.

㉦ …… 二月~八月에 採根하여 暴乾한다. (p.1196)

㉧ …… 2~8월에 뿌리를 캐서 폭 말린다.(p.1422)

㉨ …… 2월, 8월에 뿌리를 채취하여 바삭 말린다.(p.326)

㉩ …… 음력 2월과 8월에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린다.(p.3002)

㉪ …… 음력 2월과 8월에 뿌리를 캐 햇볕에 말린다.(p.3534)

㉫ …… 2월과 8월에 뿌리를 캐어 볶에 말린다.(p.2179)

원문 “二月十月採根(2월과 8월)”을 번역문·

㉬·㉭은 “自二月 至十月採根(2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뿌리를 캔다.)”의 의미로 보았고, 나머지는 “以二月與十月採根(2월과 10월에 뿌리를 캔다.)”의 의미로 보았다. 이는 “二月十月” 사이에 병렬접속사(與:과)가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이다.

원문 “二月十月採根”은 “以二月與十月採根(2월과 8월에 뿌리를 캔다.)”으로 ‘以(에)’와 ‘與(과)’의 關係語가 생략된 문장이다.

9)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1. p.249.

10) 여기서 말하는 【東醫寶鑑】은 수록된 내용 중 許浚이 기술한 부분을 말한다.

11) 병렬접속사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丁香】性溫, 味辛, 無毒. 溫脾胃, 止霍亂及腎氣奔豚氣, 冷氣腹痛, 陰痛.

③ 【淫羊藿】……治陰痿莖中痛, 益氣力, 堅筋骨……
…… 음위증과 음경 속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기력을 도와주며,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 ……陰痿와 莖中痛을 다스리고 氣力을 더하며, 筋骨을
굳세게 하니(p.1195)

㉡ ……음위(陰痿)와 경중증(莖中痛)을 치료하고 기력
(氣力)을 더해주며 근골(筋骨)을 단단하게 하니(p.1420)

㉢ ……음위(陰痿)로 음경 속이 [莖中] 아픈 증세를
치료하고 기력(氣力)을 더하고 근골(筋骨)을 단단하게 한다.(p.321)

㉣ ……음위증(陰痿證)과 음경 속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기력을 도와주며,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한다.(p.2996)

㉤ ……음위증(陰痿證)과 음경 속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기력(氣力)을 도와주며,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해준다.(p.3529)

㉥ ……음위(陰痿)와 음경 속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기력을 보태주며, 뼈와 힘줄을 튼튼 하게 하여(p.2175)

원문 “陰痿莖中痛”을 번역문 ㉣은 “以陰痿 莖中痛
(음위로(때문에) 음경 속이 아픈 증세)”로 陰痿를 莖
中痛의 원인관계로 파악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陰痿
與莖中痛(음위증과 음경속이 아픈 것)”으로 대등관
계 파악한 것이다.

원문 “陰痿莖中痛,”은 “陰痿與莖中痛”으로 병렬
접속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④ 【黃芩】……利小腸, 治乳癰發背惡瘡, 及天行熱疾.
…… 소장에 이롭고 유용·등창(發背)·악창 및
유행성 열병을 치료한다.

㉠ ……小腸을 通하고 乳癰·發背 惡瘡과 天行熱疾을 除去
한다.(p.1195)

㉡ ……소장(小腸)을 통하게 하며 유용(乳癰)과 발배(發背)·
악창(惡瘡) 및 천행열질(天行熱疾)을 치료한다.(p.1420)

㉢ ……소장(小腸)을 잘 통하게 하고 유용(乳癰)과 등에서
발하는 악창(惡瘡) 및 천행열질(天行熱疾)을 치료한다.(p.322)

㉣ ……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유용·등창·악창과 돌림
열병[天行熱疾]을 낮게 한다.(p.2997)

㉤ ……소장(小腸)을 통하게 하고, 유용(乳癰)·등창[發背]·
악창(惡瘡) 과 유행성 열병을 치료한다.(p.3530)

㉥ ……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 유용·등창·악창과 유행성
열병을 치료한다.(p.2176)

원문 “發背惡瘡”을 번역문 ㉠·㉢은 “發背惡瘡”을
(등에서 발하는 악창(惡瘡) 즉 ‘發背’를 수식관계인

관형어로 본 경우이고, 나머지는 ‘發背惡瘡’을 독립된
품사인 병명으로 파악하여 대등한 병렬관계로 파악한
경우이다.

이 역시 “發背及惡瘡(등창과 악창)”으로 關係語
‘及’이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은 수식
관계로 파악한 경우이다.

2) 連接接續詞의 省略

연접접속사는 연접 관계를 나타내는 구나 문장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접속사이다. 그것은 시간, 조건,
목적, 상대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쓰여 진다.¹²⁾
아래의 문장은 條件을 나타내는 접속사 ‘則(…면
…하다.)’이 생략된 경우이다.

【制藥方法】○山梔無豉, 不吐, 不宜. ○麻黃無蔥,
汗不發. ○附子無薑, 不熱.

위의 원문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山梔는 두시가
없다, 토하지 않는다, 퍼져나가지 않는다. 麻黃은
총백이 없다, 땀이 나지 않는다. 附子는 乾薑이 없다,
열이 나지 않는다.” 로 오역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山梔無豉則不吐而不宜(산치자는 두시가
없으면(함께 쓰지 않으면) 토하지도 못하고 퍼져나
지도 못한다.)”·“麻黃無蔥則汗不發(마황은 총백이
없으면 땀이 나지 않는다.)”·“附子無薑則不熱(부자는
건강이 없으면 덥게 하지 못한다.)”의 문장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則)가 생략된 것이나 모든 번역서에서
번역의 오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은 조건의 접속사 ‘則’이 생략
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모든 번역서가 잘못 되었다.

① 【荔枝】……生川蜀雲南, 子如鷄卵大, 殼朱如紅羅文,
肉青白如水晶, 甘美如蜜……

천축(지금의 g사천지방)과 운남 지방에서 나며
열매는 계란 큰 것과 같고, 껍질이 붉어지면 붉은 비단
무늬 같다. 살은 푸르고 흰 것이 수정과 같고 맛이
좋아 꿀과 같다.

12) 요진우 편저, 이중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1. p.256.

㉠ …… 열매가 鷄卵과 같고 껍질이 큰 것은 붉은 비단 무늬와 같으며 肉이 淸白하여 水晶과 같고 맛이 꿀과 같으며 (p.1162)

㉡ …… 열매가 계란과 같고 껍질이 큰 것은 붉은 비단 무늬와 같으며 살이 청백(淸白)해서 수창(水唱)과 같고 맛이 꿀과 같으며(p.1386)

㉢ …… 열매[子]는 계란 같고 큰 껍질은 붉은 비단 무늬 같고[羅文], 살[肉]은 푸르고 희니[淸白] 수정(水晶)같고 맛이 좋아 꿀맛 같다.(p.238)

㉣ …… 사천·운남 지방에서 나며, 과실은 달걀만하고, 껍질에는 붉은 향라의 무늬 같은 것이 있으며, 살은 푸르고 흰 것이 수정 같고 맛이 꿀맛 같다.(p.2913)

㉤ …… 사천(四川)·운남(雲南) 지방에서 나는데, 과실은 달걀만하고 껍질에는 붉은 비단무늬가 있고, 과육은 푸르스름하게 흰 것이 수정 같으며, 맛은 꿀맛 같다.(p.3455)

㉥ …… 사천·운남 지방에서 난다. 열매는 계란만 한데, 껍질이 붉은 비단무늬 같이 붉다. 살은 수정 같은 청백색인데, 꿀같이 달고 맛있다.(p.2113)

원문 “子如鷄卵大, 殼朱如紅羅文”은 “子如鷄卵大, 殼朱則如紅羅文(열매는 계란 큰 것과 같고 껍질이 붉어지면 붉은 비단의 무늬 같다.)”의 문장으로 ‘殼朱’ 뒤에 연속접속사 ‘則(……하면 ……하다.)’이 생략된 것이다.

關係語 ‘則’이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은 “子如鷄卵, 大殼朱如紅羅文(열매가 鷄卵과 같고, 껍질이 큰 것은 붉은 비단 무늬와 같으며)”으로 문장을 잘못 끊어 ‘大’를 ‘殼’의 보어나 수식어로 처리하고 ‘朱’를 해석에서 빼어버렸다.

㉣·㉤·㉥ 역시 ‘大’와 ‘朱’를 해석에서 빼어버리고 條件文을 平敍文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모든 번역문이 조건의 연접접속사 ‘則’이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무리하게 해석한 경우이다.

다음의 문장은 조건의 연접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의 文句를 독립된 두개의 文句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

② 【蛇床子】主婦人陰中腫痛, 男子陰痿, 濕痒, 溫中下氣, 令婦人子藏熱, 男子陰強, 浴男女陰, 去風冷, 大益陽事. 腰痛陰汗濕癢縮小便療赤白帶下

부인의 음부 속 종통과 남녀의 음위(陰痿)와 습양(濕痒)을 주로 치료하며, 속을 덥히고 기를 내린다.

부인으로 하여금 자궁에 열기가 저장되게 하고 남자의 정기가 강해지도록 한다. (사상자로) 남녀의 생식기를 씻으면 풍냉(風冷)을 제거한다. ……

㉠ 婦人の子宮을 따습게 하며 男子의 陰을 強하게 하여 男女의 陰을 흐뭇하게 하며 風冷을 제거하고,(p.1189)

㉡ 부인의 자궁을 따듯하게 하며 남자의 음(陰)을 강하게 해서 남녀의 음을 만족하게 하며 풍냉(風冷)을 없애주고 (p.1413)

㉢ 부인의 자궁[子]을 따듯하게 하고 남자의 음(陰)을 강하게 하고 복용하면 남녀의 음(陰)의 풍냉(風冷)을 제거하여 (p.305)

㉣ 주로 부인의 음부가 부어서 아픈 것과 남자의 음위증(陰痿證), 사타구니가 축축하고 가려운 데 쓴다. 속을 덥히고, 기를 내리며, 자궁을 덥게 하고, 양기를 세게 한다. 남녀의 생식기를 씻으면 풍냉(風冷)을 없앤다. (p.2982)

㉤ 부인의 음부가 부어서 아픈 것과 남자의 음위증(陰痿證), 사타구니가 축축하고 가려운 데 쓰고, 속을 덥히고 기를 내리며, 자궁을 덥게 하고 남자의 음기(陰氣)를 세게 하며, 남녀의 생식기를 씻으면 풍냉(風冷)을 없애주고, (p.3516)

㉥ 부인의 음부가 붓고 아픈 것, 남자의 음위와 음부가 축축하며 가려운 데 주로 쓴다. 속을 데우고 기를 내리며, 부인의 자궁을 덥게 하고 남자의 음경을 강하게 한다. 남녀의 음부를 씻으면 풍냉(風冷)을 없앤다. (p.2164)

원문의 “浴男女陰 去風冷”은 “浴男女陰 則去風冷 ((사상자로) 남녀의 생식기를 씻으면 풍냉(風冷)을 제거한다.)”의 문장으로 “浴男女陰” 뒤에 연속접속사 ‘則(……하면 ……하다.)’이 생략된 것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浴男女陰 去風冷”을 ㉠·㉡은 條件文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2개의 句節(男女의 陰을 흐뭇하게 하며 風冷을 제거하고)로 해석한 경우인데 “浴”을 ‘흐뭇하게’로 번역한 것이다. ㉢은 ‘浴 則 男女陰去風冷(복용하면 남녀의 음(陰)의 풍냉(風冷)을 제거하여)’으로 해석한 경우인데 “浴”을 ‘복용하면’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경우는 조건의 접속사 위치가 잘못되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2. 助詞의 省略

助詞는 單語 나 句 또는 문장 앞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助詞 ‘之(…의, …한, …은)’는 관형어와 수식을 받는 중심사 사이에 종속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식어(관형어)가 2字 이상이면 ‘之’를 넣고 관형어가 1字이면 넣지 않는다. 『東醫寶鑑』에서 허준이 쓴 문장에는 冠形格 助詞 ‘之’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景天】性平(一云冷), 味苦酸, 無毒(一云小毒). 治心煩熱狂, 赤眼, 頭痛, 遊風丹腫, 及大熱火瘡, 婦人帶下, 小兒丹毒.

성질은 평하며(한편 냉하다고도 한다.)맛이 쓰고 시며 독이 없다. (한편 독이 조금 있다고도 한다.) 가슴의 번열에 의해 발광과 눈이 충혈되는 것과 두통과 유풍으로 인해 별경계 부은 것과 센 불의 화상과 부인의 대하와 소아의 단독 등을 치료한다.

원문 “大熱火瘡, 婦人帶下, 小兒丹毒.”에 조사를 배합하면 “大熱之火瘡, 婦人之帶下, 小兒之丹毒也.”이다. 그러나 관형격조사 ‘之’가 배합되지 않아도 크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음의 문장은 격조사가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번역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① 【防己】性平溫, 味辛苦, 無毒. 治濕風口面喎斜, 手足疼, 溫瘧熱氣. ……

성질은 평하고 따뜻하고 맛은 맵고 쓰며 독이 없다. 풍습으로 인해 입과 얼굴이 돌아간 것과 손발의 통증, 온학(溫瘧)으로 인한 열기(熱氣)를 치료한다.

㉠ …… 濕風과 口面喎斜와 手足疼痛과, 溫瘧熱氣를 다스리고 ……(p.1198)

㉡ …… 습풍(濕風)과 구면괘사(口面喎斜) 및 수족동통(手足疼痛)과 온학열기(溫瘧熱氣)를 낮게하고,(p.1424)

㉢ …… 얼굴의 와사증[喎斜]과 수족의 통증[疼]과 온학(溫瘧)의 열기(熱氣)를 치료하고(p.331)

㉣ …… 풍·습으로 입과 얼굴이 뺨떨어진 것, 손발이 아픈 것, 온학과 열기를 낮게하며,(p.3007)

㉤ …… 풍(風)·습(濕)으로 입과 얼굴이 돌아간 것, 손발이 아픈 것, 온학(溫瘧)과 열기(熱氣)를 치료하며,(p.3538)

㉥ …… 습이나 풍으로 구안와사와 손발이 아픈 것과 온학의 열기를 치료한다.(p.2183)

이 문장의 주어는 ‘防己’이고 서술어는 ‘治’이다. 구문구조상 ‘治’ 이하 “濕風口面喎斜, 手足疼, 溫瘧熱氣”는 목적어이다.

위 문장에 배합된 “手足疼”과 “溫瘧熱氣”에 대해 ㉠·㉡은 번역을 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수록 하였고 ㉢은 “手足之疼, 溫瘧之熱氣(수족의 통증, 온학의 열기)”로 ‘手足’과 ‘溫瘧’을 관형어(수식어)로 보았다. ㉣·㉤은 “手足疼(손발이 아픈 것)”은 목적어절의 주어 술어 관계로, “溫瘧熱氣(온학과 열기)”는 대등 관계로 번역하였다. ㉥은 ‘手足疼’은 목적어절의 주어 술어 관계(수족이 아픈것)로 ‘溫瘧熱氣(온학의 열기)’는 수식관계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중심사)의 사이에 ‘之’가 생략된 것과 원인관계를 나타내는 ‘因’이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다.

이 문장은 “治因濕風 口面喎斜, 而手足之疼, 因溫瘧熱氣(풍습으로 인해 입과 얼굴이 돌아간 것과 손발의 통증, 온학(溫瘧)으로 인한 열기(熱氣)를 치료한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葫蘆巴】性溫, 味苦, 無毒. 治腎虛冷, 腹脇脹滿, 面色青黑. 又云治元藏虛冷氣, 爲最要.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신장이 허랭하여 배와 옆구리가 창만한 것과 얼굴색이 검푸른 것을 치료한다. 또 “신장(元藏)의 허랭한 기운을 치료하는데 가장 요긴한 것이다.”고 했다.

㉠ …… 元藏의 虛冷한 氣를 다스리는 데 最要하다.(p.1210)

㉡ …… 元藏(元藏)의 허냉(虛冷)한 기(氣)를 내리게 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다.(p.1437)

㉢ …… 元藏(元藏)이 허(虛)하 기(氣)가 차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P.362)

㉣ …… 腎(腎)이 허랭한 것을 낮게 하는 가장 요긴한 약이라고 한 데도 있다.(P.3039)

㉤ …… 腎(腎)이 허랭한 것을 치료하는 데 가장 요긴한 약이라고 한 곳도 있다.(P.3566)

㉥ …… 元藏(元藏)이 허(虛)하고 찬 것을 치료하는 데 가장 요긴하다고 한 곳도 있다.(P.2206)

위의 문장 “治元藏虛冷氣”는 “治元藏之虛冷氣(신장의 허랭한 기운을 치료하는 데)”로 ‘元藏’은 ‘虛冷氣’의 수식어로 보아야 문맥이 정확하게 파악된다.

㉢은 非文이고 ㉣·㉤·㉥은 ‘元藏’을 목적어절의 주어로 ‘虛冷’을 서술어로 처리함으로 인해 ‘氣’를 번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腎)이 허랭한 것을

기(氣)를 닳게 하는(치료하는)”로 해석하면 非文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元藏’은 주격이 아니라 관형격으로 ‘元藏’ 뒤에 조사 ‘之’가 생략된 것이다.

3. 語氣詞의 省略

한문의 語氣詞는 고대중국어 즉 先秦時代 이전부터 발달되었다. 語氣詞는 문장의 語氣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장의 성질을 판명해준다. 판단문에는 也·矣·焉 등이 사용된다.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문헌에는 어기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나 허준이 직접 쓴 문장에는 語氣詞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¹³⁾ 이러한 특징은 「湯液篇」 전체를 통해서 허준의 문장에 나타나고 있다.

【論水品】者日常所用人多忽之殊不知天之生人水穀以養之水之於人不亦重乎故人之形體有厚薄年壽有長短多由於水土之不同驗之南北可見矣<食物>○凡井水有遠從地脉來者爲上有從近處江河中滲來者欠佳城市人家稠密溝渠污水雜入井中成醞用水煎滾停頓一時後醞下墜取上面清水用之否則氣味俱惡而煎茶釀酒作豆腐三事尤不堪也雨後井水渾濁須播桃杏仁連汁投水中攪留少時則渾濁墜底矣<食物>

【臘雪水】臘雪水大寒水也雨下遇寒氣凝而爲雪其花六出稟六一之正氣也<入門>

위의 문장은 醫書에서 인용된 것으로 語氣詞가 사용된 문장이다. 다음의 예문에서는 허준이 서술한 부분과 인용문에서 어기사 사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人參】性微溫(一云溫)味甘(一云味苦)無毒主五藏氣不足安精神定魂魄明目開心益智療虛損止霍亂嘔噦治肺痿吐膿消痰○讚曰三椹五葉背陽向陰欲來求我椹樹相尋一名神草如人形者有神○此物多生於深山中背陰近椹漆樹下濕潤處中心生一莖與桔梗相似三四月開花秋後結子二月四月八月上旬採根竹刀刮暴乾○人參動肺火凡吐血

13) 모든 문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湯液篇 전체를 볼 때 사용한 빈도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문장의 특성으로 보았다. 終結詞를 사용한 문장도 간혹 있다. 【黃芪】○……治傷寒尺脉不至，補腎藏元氣，爲裏藥。是上中下內外三焦之藥也。

久嗽面黑氣實血虛陰虛之人勿用代以沙參可也<丹心>○人參苦微溫補五藏之陽沙參苦微寒補五藏之陰也<丹心>○夏月少使發心疝之患也<本草>

【麻黃】性溫(一云平)味苦(一云甘)無毒主中風傷寒頭痛溫瘧發出汗去邪熱氣除寒熱五藏邪氣通腠理治溫疫禦山嵐瘴氣○立秋採莖陰乾令青用之先去根節根節止汗故也先煮一兩沸去上沫沫令人煩<本草>○麻黃生于中牟雪積五尺有麻黃處則雪不聚盖通陽氣却外寒也<三因>

위의 예문을 보면 許浚이 기술한 문장에는 語氣詞가 배합되지 않았다. 그 뒤 <本草>, <丹心>, <湯液>, <三因> 등의 인용한 醫書에는 어기사가 배합되어 있다.

陳述 語氣詞(也·已·矣·焉·耳 등)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문장이 끝에 사용된다.

허준의 문장은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문장의 시작에는 반드시 ○을 표시함으로 인해 문학의 문장처럼 연속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語氣詞를 생략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4. 介詞의 省略

介詞란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성 사조 앞에 놓여 이들과 더불어(개사+명사)술어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에 동작, 행위, 방향, 대상, 처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며 명사와 명사 사이에 놓여 이들을 소유나 수식의 관계로 맺어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¹⁴⁾

1) 時間介詞 ‘以’의 省略

시간개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中心詞에 소개하기 위해 사용되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以’·‘於’이다.

① 【生地黄】處處種之，二月八月採根陰乾，沈水肥大者佳。一名地髓，一名芑。生黃土地者佳。

곳곳에 그것이 있으니 2월과 8월에 뿌리를 캐어 그늘에서 말린다. 물에 넣어 가라앉고 비대한 것이 좋다. 일명(一名) 지수(地髓)라하고 일명(一名) 하(芑)

14) 崔相翼. 漢文解釋講話. 서울. 한올아카데미. 1977. P.427.

라고도 한다. 누런 땅에서 자란 것이 좋다.

② 【通草】核黑瓢白,食之甘美,謂之燕覆子,正月二月採枝,陰乾.

씨는 검고 속은 흰데 그것을 먹으면 달고 맛이 좋다, 이것을 연복자라 한다. 정월과 2월에 가지를 채집하여 그늘에서 말린다.

③ 【百合】根如胡蒜,數十瓣相累,二月八月採根,暴乾.

뿌리는 마늘과 같고 수십 쪽이 서로 겹쳐있다. 2월과 8월에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린다.

위의 문장은 시간개사 ‘以(…에)’가 생략된 문장이다. 이러한 특성은『東醫寶鑑』전체를 통해 허준이 쓴 문장에 모두 나타난다. 원문 “二月八月採根陰乾”은 시간개사 ‘以’와 접속사 ‘與’를 배합하면 “以二月與八月採根陰乾(2월과 8월에 뿌리를 캐어 그늘에서 말린다.)” 문맥이 명확해진다.『東醫寶鑑』보다 앞서 출간된 중국의醫書에는 시간개사 ‘以’가 배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採藥法】凡採藥時月,多以二月八月採者,謂春初,津潤始萌,未充枝葉,勢力淳濃故也…<本草>

【苦參】實,以十月收其子,餌如塊子法,久服輕身不老明目,有驗.<本草>

2) 處所介詞 ‘於’의 省略

처소개사 ‘於(…에서, …에)’는 동사나 명사 뒤에 배합되어 방향이나 위치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허준의 문장에는 동일한 문장 구조에서도 처소개사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人參】此物,多生於深山中.背陰,近欖樹下,濕潤處…… 이(인삼) 식물은 깊은 산 속에서 많이 자란다. 음지를 배경으로 박달나무나 율나무 아래 가까이 습지고 (땅이)기름진 곳에서 자란다.

【三稜】處處有之,多生淺水中,葉皆三稜.…… 곳곳에 그것이 있다. 얕은 물속에서 많이 자라며 잎은 모두 세모이다. ……

人參의 문장 “多生於深山中”은 처소개사 ‘於’를 배합한 경우이고 三稜의 “多生淺水中”은 처소개사 ‘於’가 배합되지 않은 경우이다. 誤譯한 번역서는 없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문장인 다음의 경우는 오역이 보인다.

【前胡】性微寒,味甘辛,無毒.治一切勞,下一切氣,療痰滿胸脇中痞,心腹結氣,去痰實,下氣止嗽,開胃下食.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면서 맵고, 독이 없다. 모든 허로를 치료하고, 모든 기(氣)를 내리고 담이 가슴과 옆구리에 차서 배속이 걸리고, 명치 아래에 기가 몰린 것을 치료한다. 담(痰)이 실(實)한 것을 제거하고, 기를 내리며, 기침을 멈추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시킨다.

㉠ ……痰이 胸脇에 찬 것과 心腸의 痞와 結氣를 다스리고 痰實을 除하고……(p.1195)

㉡ ……담(痰)이 胸脇(胸脇)에 차는 것과 심장(心腸)의 비(痞)와 結氣(結氣)를 치료하며.(p.1421)

㉢ …… 담(痰)이 그득하고 가슴과 속이 더부룩하고[痞] 심복(心腹)이 기(氣)가 맺히는 증세를 낮게 한다.……(p.324)

㉣ …… , 가슴과 옆구리에 담이 있어 그득한 것과 속이 트릿한 것, 명치 밑에 기가 몰린 것을 낮게 한다.(p.2999)

㉤ …… , 가슴과 옆구리에 담(痰)이 있어 그득한 것과 속이 거북한 것 명치끝에 기가 몰린 것을 치료하며,(p.3532)

㉥ …… 담으로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한 것, 속이 막힌 것, 가슴과 배에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p.2177)

원문 “痰滿胸脇, 中痞,”는 “痰滿於胸脇 中痞(담이 가슴과 옆구리에 차서 배속이 걸리고)”의 문장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 ‘於’가 ‘胸脇’ 앞에 생략된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은 ‘痰滿 而胸脇中痞(담이 그득하고, 가슴과 속이 더부룩하고)’로 두 개의 문장으로 파악하였고, ㉤은 ‘因痰滿胸脇(담으로 인해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한 것)’은 원인관계로 파악한 경우이다.

3) 原因介詞 ‘因’의 省略

원인개사는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를 중심사에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원인개사로는 ‘以(…때문에)’ · 因(…으로 인하여, …말미암아)이 많이 쓰인다.

① 【防己】性平溫，味辛苦，無毒。治濕風口面喎斜，手足疼，溫瘡熱氣。……

성질은 평하고 따뜻하고 맛은 맵고 쓰며 독이 없다. **풍습으로 인해 입과 얼굴이 돌아간 것과, 손발의 통증과, 온학(溫瘡)의 열기(熱氣)를 치료한다.**

㉠ …… **濕風과 口面喎斜**와 手足疼痛과 溫瘡熱氣를 다스리고 ……(p.1198)

㉡ …… **습풍(濕風)과 구면괴사(口面喎斜)** 및 수족동통(手足疼痛)과 온학열기(溫瘡熱氣)를 낮게하고,(p.1424)

㉢ …… **습풍(濕風)을 치료한다. o 얼굴의 와사증[喎斜]과** 수족의 통증[疼]과 온학(溫瘡)의 열기(熱氣)를 치료하고 (p.331)

㉣ …… **풍·습으로 입과 얼굴이 뺨뺨어진 것**, 손발이 아픈 것, 온학과 열기를 낮게 하며,(p.3007)

㉤ …… **풍(風)·습(濕)으로 입과 얼굴이 돌아간 것**, 손발이 아픈 것, 온학(溫瘡)과 열기(熱氣)를 치료하며,(p.3538)

㉥ …… **습이나 풍으로 구안와사나** 손발이 아픈 것과 온학의 열기를 치료한다.(p.2183)

원문의 ‘治濕風口面喎斜’를 ㉠·㉡·㉢은 ‘濕風與口面喎斜(습풍과 구면괴사)’는 대등관계로 본 해석이고 ㉣·㉤·㉥은 ‘因濕風口面喎斜(습·풍으로 입과 얼굴이 뺨뺨어진 것)’는 원인관계로 본 해석이다.

이 문장은 원인관계를 나타내는 개사 ‘因’이 ‘濕風’ 앞에 생략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因濕風’ 풍습으로 인해).

② 【石菖】性平(一云微寒)，味苦甘，無毒。治五淋胞囊結熱不通，膀胱熱滿，淋瀝遺尿利，利小便水道。

성질은 평하고 (한편 약간 차다고도 한다.)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 **오림(五淋)으로 인해 포낭(包囊)에 열이 차 통하지 못하는 것과 방광에 열이 차여서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오줌이 흘러내리는 것들을 치료하고 오줌길을 순조롭게 한다.**

㉠ …… **五淋과 胞囊의 結熱과 膀胱熱과 遺尿淋瀝**을 다스리고 小便의 水道를 通利한다.(p.1196)

㉡ …… **오림과 포낭(胞囊)의 결열(結熱)및 방광열(膀胱熱)과** 유노임력(遺尿淋瀝)을 낮게하고 소변의 수도(水道)를 통하게 한다.(p.1422)

㉢ …… **5림(淋)과 포낭(胞囊)에 열이 맺혀 불통하고** 방광(膀胱)에 열이 가득하여 뚝뚝 떨어지고[淋瀝] 유노(遺尿)하는 것을 치료하고 오줌길[水道]을 잘나오게 한다.(p.326)

㉣ …… **5림(五淋)으로 포낭(胞囊)에 열이 몰려서 오줌이** 나가지 않는 것과 방광에 열이 차서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오줌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낮게 하고, 오줌길을 순조롭게 한다. (p.3001)

㉤ …… **오림(五淋)으로 포낭(胞囊)에 열이 맺혀서 오줌이** 나오지 않는 것과 방광에 열이 차서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나오는 줄 모르고 나오는 것을 치료하여 소변이 나오는 것을 순조롭게 해준다 (p.3533)

㉥ …… **오림(五淋)과 오줌보에 열이 맺혀 소변이 안** 나오는 것, 방광(膀胱)에 열이 나며 그득한 것, 소변이 찝찝 찝찝 나오는 것과 유노를 치료한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p.2179)

원문의 “五淋胞囊”을 번역문 ㉠·㉡·㉢·㉣은 “五淋與胞囊(오림과 포낭)”의 대등관계로 번역한 경우이고, ㉤·㉥은 “因五淋胞囊(오림으로 포낭에)”의 원인관계로 본 경우이다.

이 문구 역시 “因五淋胞囊(오림으로 인해 포낭에)”으로 원인개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③ 【蘇方木】性平(一云寒)，味甘鹹，無毒。治婦人血氣心腹痛……

성질은 평하고(한편 차다고도 한다.) 맛은 달고 짜며, 독이 없다. **부인이 혈기로 인한 심복통 ……**을 치료한다.

㉠ …… **婦인의 血氣와 心腹痛과 ……**(p.1229)

㉡ …… **부인의 심복통(心腹痛) 및 혈기와 ……**(p.1457)

㉢ …… **부인의 혈기(血氣), 심복통(心腹痛)**(p.411) ……

㉣ …… **부인이 혈기병(血氣病)으로 명치 아래가 아픈 것**, (p.3088) ……

㉤ …… **부인이 혈기병(血氣病)으로 명치 아래가 아픈 것**, (p.3608) ……

㉥ …… **부인의 혈기통으로 명치가 아픈 것**,(p.2242) ……

원문의 “婦人血氣心腹痛”을 ㉠·㉢은 “婦人之血氣與心腹痛 (부인의 혈기와 심복통)”으로 ‘婦人’은 관형어로 ‘血氣’와 ‘心腹痛’은 대등관계로 파악하였고, ㉡·㉣은 “婦人 因血氣, 心腹痛 (부인이 혈기병으로 명치 아래가 아픈 것)”으로 ‘血氣’를 ‘心腹痛’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은 “因婦人之血氣, 心腹痛 (부인의 혈기병으로 명치 아래가 아픈 것)”으로 ‘婦人’을 ‘血氣’의 관형어로 파악한 경우이다. ㉥은 ‘婦人’과 ‘血氣’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번역에서 ‘血氣’와 ‘心腹痛’의 해석이 바뀐 경우이다.

이 문구 역시 “婦人 因血氣 心腹痛…(부인이 혈기로 인한 심복통…)”으로 원인개사 ‘因’이 ‘血氣’ 앞에 생략된 것이다.

5. 敘述語의 省略

한문의 통사 구조에서 기본구조는 주어+서술어+목적(보어)이고, 확장구조는 관형어+주어+부사어+서술어+관형어+목적어(보어)이다.

한문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은 말뜻의 표현과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종종 어떠한 문장의 성분을 생략하여 말을 더욱 간결하게 다져지게 할 수 있다.¹⁵⁾ 『東醫寶鑑』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나타난다. 본고에서 일반적인 인문과학에서의 서술어 생략과는 다른 특성을 살펴 보려한다.

1) 반대 개념의 敘述語 省略

① 【蝟皮】 性平, 味苦, 一云甘, 無毒, 一云毒.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며(한편 달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한편 독이 있다)고도 한다.)

② 【烏賊魚骨】 性微溫, 味鹹, 無毒, 一云小毒.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한편 적은 독이 있다)고도 한다.)

③ 【茵陳蒿】 性微寒, 一云涼, 味苦辛, 無毒, 一云小毒.

성질은 약간 차며 (한편 서늘하다고도 한다.) 맛은 쓰고 맵다, 독이 없다. 한편으로는 약간의 독이 있다)고도 한다.

④ 【白僵蠶】 性平, 味鹹辛, 無毒, 一云小毒.

성질은 평하고 맛은 짜면서 매우며 독이 없다. (한편 약간의 독이 있다)고도 한다.)

⑤ 【鱖魚】 性平, 味甘, 無毒, 一云微毒.

성질은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한편 적은 독이 있다)고도 한다.)

⑥ 【菘菜】 性平, 一云涼, 味甘無毒, 一云微毒.

성질은 평하고 (한편 서늘하다고도 한다.) 맛이 달며 독이 없다.(한편 적은 독이 있다)고도 한다.)

⑦ 【蘭草】 葉不香, 惟花香, 盆盛置座右, 滿室盡香, 與他花香又別

잎은 향기가 나지 않고 오직 꽃은 향기가 있다.) 화분에 심어 곁에 두면 방 가득히 향기가 차고 다른 꽃향기와는 또 구별이 된다.

①~⑥의 경우는 앞의 단어 ‘無毒(독이 없다)’의 ‘無’에 대한 반대 개념을 聯想해서 ‘小毒’과 ‘微毒’ 앞에 서술어 ‘有’가 생략한 것이고, ⑦의 경우는 앞의 ‘不香(향기가 없다)’의 ‘不’의 반대 개념인 ‘有’가 ‘花’와 ‘香’의 사이에 생략한 것이다 (花有香 : 꽃은 향기가 있다).

앞에 나온 서술어의 반대 개념을 생략하는 것은 허준의 문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다.¹⁶⁾ 인용된 중국의 醫書에는 허준의 문장과 달리 서술어가 배합되어 있다.

【伏翼】 性平, 一云微熱, 味鹹, 無毒, 一云有毒. 主目暝痒痛, 明目夜視有光, 療五淋, 利水道, 一名蝙蝠<本草>

【羊蹄根】 性寒, 味苦辛, 無毒. 一云有小毒. 主頭禿, 疥癬, 疽痔, 女子陰蝕浸淫, 殺諸虫. 療蟲毒, 浮腫毒. 處處有之<本草>

2) 位置·症狀를 나타내는 目的語(補語)의 敘述語 省略

① 【人參】 此物, 多生於深山中. 背陰, 近檟漆樹下, 濕潤處. 中心生一莖, 與桔梗相似.

이(인삼) 식물은 깊은 산 속에서 많이 자란다. 음지를 배경으로 박달나무나 옻나무 아래 가까이 습지고 (땅이)기름진 곳에 있다. 서자란다.) 중심에는 하나의 줄기가 나오는데 도라지와 서로 비슷하다.

① 이것이 深山中에서 나는데 陰을 등지고 檟樹나 漆樹 밑의 濕潤한 땅에 나서 中心에 한 대궁이 나오고 桔梗과 비슷한데 (p.1178)

15)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1. p.370.

16)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인문학의 논문에서 보고된 경우가 없다.

㉠ 이것이 깊은 산속에서 나는데 음(陰)을 등지고 가나무나 칠나무 밑의 습윤(濕潤)한 땅에 **나며** 길경(桔梗)과 비슷한데(p.1402)

㉡ 이것은 깊은 산중에 많이 나고 음(陰)을 등진 개오동나무(槲樹) 칠나무[漆樹] 아래 습하고 운기나는 곳 중심에 **난다**. 한줄기는 도라지와 서로 비슷하다.(p.280)

㉢ 산삼(山蔘)은 깊은 산에서 흔히 자라는데 웅달쪽 박달나무나 옻나무[漆樹] 아래의 습한 곳에서 **자란다**.(p.2956)

㉣ 인삼은 흔히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데, 웅달쪽 유자나무나 옻나무 아래의 습한 곳에서 **자란다**. 인삼 가운데는 하나의 줄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마치 길경(桔梗, 도라지)과 비슷하다.(p.3493)

㉤ 보통 깊은 산 속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데, 개오동나무나 습한 곳에서 **자란다**. 한가운데서 줄기 하나가 뻗어 올라오는 것이 길경과 비슷하다.(p.2145)

위의 문구 濕潤處의 주어는 생략되었으나 제목으로 나온 ‘人蔘’이고 서술어는 생략되었고, 보어는 ‘濕潤處’이다. 즉 ‘人蔘生濕潤之處(인삼은 습윤한 곳에서 자란다.)’의 문장이다. 서술어 ‘生’이 생략되었으나 ㉠을 제외한 모든 번역문에서는 ‘生’을 서술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은 ‘濕潤處中心生, 一莖與桔梗相似(습하고 운기나는 곳 중심에 난다, 한줄기는 도라지와 서로 비슷하다)’로 번역하였다.

이는 서술어 ‘生’이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뒷 구절의 생을 앞 구절의 서술어로 보고 문장의 단락을 잘못 정한 경우이다. 즉 “濕潤處” 앞에 ‘生’이 생략되었고 ‘中心’ 앞에 ‘於’가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이다.

요컨대 “(生)濕潤處. (於)中心生一莖 與桔梗相似”의 문장 나누기를 “濕潤處中心生, 一莖與桔梗相似”의 문장으로 본 것이다.

다음의 문장은 서술어가 생략됨으로 인해 역자가 주관적으로 서술어를 번역의 경우이다.

② 【紫菀】性溫, 一云平, 味苦辛, 無毒. 治肺痿吐血, 消痰止渴, 咳逆上氣, 咳唾膿血, 寒熱結氣, 潤肌膚, 添骨髓, 療痿瘳. 성질은 따뜻하고, (한편 평하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폐위로 피를 토하는 것을 치료하고 담을 삭이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딸꾹질로 기가 치미는 것,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것, 한열(寒熱)로 기(氣)가 맺히는 것()**.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골수를 더해줌 사지(四肢)가

위축(萎縮)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 … 肺痿의 吐血을 다스리고, 消痰止渴하고 咳逆上氣와 膿血을 咳唾하는 것과 寒熱結氣를 **除하고** 肌膚를 분게 하고 骨髓를 더하고 療痿瘳(얕은뱅이)을 다스린다.(p.1195)

㉡ … 폐위(肺痿)와 토혈(吐血)을 낮게하고 소담지갈(消痰止渴)하며 해수(咳嗽)와 한열결기(寒熱結氣)을 **없애주고** 기부(肌膚)와 골수(骨髓)를 더해줌어 위벽(痿瘳)을 치료한다.(p.1421)

㉢ … 맛이 쓰고 맵고[苦辛] 독이 없다. 폐위(肺痿)하여 토혈(吐血)하는 것을 주치고 담(痰)을 없애고 갈증나고 기침이 거슬러 상기(上氣)하고 침뱉음[咳唾]. 농혈(膿血)과 한열(寒熱)로 기(氣)가 맺히는 것을 **멧게 한다**. 기부(肌膚)를 윤택케 하고 골수(骨髓)를 더하고 몸이 저려 쓰러지는[痿瘳] 증세를 낮게 한다.(p.323)

㉣ … 폐위(肺痿)로 피를 토하는 것을 낮게 하고, 담을 삭이며, 갈증을 멧게 하고, 기침을 하면서 기가 치미는 것, 기침 할 때 피고름을 뱉는 것,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 기가 물리는 것을 멧힌 것을 낮게 한다.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골수(骨髓)를 보태어 주고, 다리가 힘이 없는 것을 낮게 한다. 위벽증(痿瘳證)을 **낮게 한다**.(p.2998)

㉤ … 폐위(肺痿)로 피를 토하는 것을 낮게 하고, 담을 삭이며 갈증을 멧게 하고, 딸꾹질을 하거나 기가 치미는 것, 기침 할 때 피고름을 뱉는 것, 오한과 신열로 기가 멧힌 것을 **낮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골수(骨髓)를 보태어 주며, 다리가 힘이 없는 것을 낮게 한다.(p.3531)

㉥ … 폐위(肺痿)와 토혈을 치료 하고, 담을 삭이며 갈증을 멧게 한다. 딸꾹질하면서 상기되는 것, 기침하며 피고름을 뱉는 것, 한열에 기가 멧힌 것을 **치료한다**. 피부를 윤기나게 하고, 골수(骨髓)를 채우며, 다리가 위축되고 약하게 늘어선 치료한다.(p.2177)

원문의 “消痰止渴(담을 삭이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이후의 구절 “咳逆上氣, 咳唾膿血, 寒熱結氣”에 대한 서술어가 없다. 그로인해 번역서 마다 자의적으로 서술어를 첨가해서 번역하였다.

③ 【五加皮】性溫 一云微寒, 味辛苦, 無毒. 補五勞七傷, 益氣添精, 堅筋骨, 強志意, 男子陰痿, 女子陰痒, 療腰脊痛, 兩脚疼痺, 骨節攣急, 痿瘳, 小兒三歲不能行, 服此便行步.

…… 의지를 굳세게 한다(強). 남자의 음위증과 여자의 음부 가려움증을(). 허리와 척추의 통증, 두 다리가 아프고 저린 것, 허리와 등의 통증, …… 등을 치료한다(療).

"男子陰痿, 女子陰痒" 앞에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만약 앞에 나온 '强'이 계속된 뒷 문구의 서술어로 가정한다면 "의지와 남자의 음위증과 여자의 음부 가려움증을 강하게 한다(强)."는 비논리적인 문장이 되고 만다.

④ 【胡黃連】性寒, 味苦, 無毒. 主骨蒸勞熱, 補肝膽, 明目, 小兒久痢成疳 及驚癇, 婦人胎蒸, 男子煩熱. ○生胡地, 似乾楊柳枝, 心黑外黃, 析之塵出如烟者, 爲眞. <本草> …… 눈을 밝게 한다(明). 어린아이가 오래된 이질로 감질(疳疾)이 된 것과 경간(驚癇), 부인의 임신 중에 나는 열, 남자의 번열(煩熱)을(),

"小兒久痢成疳 及驚癇, 婦人胎蒸, 男子煩熱." 앞에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⑤ 【竹瀝】主暴中風胸中大熱, 止煩悶, 卒中風失音不語, 痰熱昏迷, 止消渴, 治破傷風及產後發熱, 小兒驚癇, 一切危急之疾. …… 속이 답답한 것을 그치게 하다(止). 갑작스런 증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담열로 정신을 잃는 것을(). 소갈을 멎게 하며(止)…… "卒中風失音不語, 痰熱昏迷" 앞에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吳茱萸】性熱, 味辛苦, 有小毒, 主溫中下氣. 止痛. 心腹積冷絞痛, 諸冷實不消, 中惡心腹痛, 治霍亂吐瀉轉筋, 消痰破癥癖, 除濕血痺療腎氣, 脚氣, 胃中冷氣.

……통증을 멎게 한다(止). 명치 밑에 쌓여진 냉으로 쥐어짜듯 아픈 것, 여러 냉이 실(實)하여 살아지지 않는 것, 중악(中惡)으로 명치 밑이 아픈 것을(). 광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면서 쥐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治). ……

이 구절 역시 "心腹積冷絞痛, 諸冷實不消, 中惡心腹痛" 앞에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이다.

허준의 문장 중에는 病的 症狀를 기술한 부분에 서술어를 생략한 특성이 있다.

한문에서 서술어의 생략은 ① 앞글을 받아서 생략되는 경우, ② 뒷글에 보여 생략되는 경우, ③ 말뜻이 자명하여 생략되는 경우, ④ 詩歌 중의 생략 등이다.¹⁷⁾

위 예문의 내용들은 약재가 어떠한 증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근본으로 서술된 내용이므로 서술어 생략 ③의 경우에 해당되고 생략된 서술어는 '治'로 생각된다.

6. 補語의 우리말 語順

한문의 문장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로 문장성분을 배열한다. 아래의 문장은 보어가 우리말 어순으로 서술어 앞에 배합된 경우이다.

① 【款冬花】根紫色, 莖青紫, 葉似萆薢, 十一月十二月, 雪中出花, 紫赤色.

뿌리는 자주색이고 줄기는 푸른 자주색이며 잎은 비해와 비슷하다. 11월과 12월에 눈속에서 꽃을 피우는데 자색과 적색이다.

② 【三稜】處處有之, 多生淺水中, 葉皆三稜. 霜降後採根, 削去皮鬚. 黃色體重, 狀若鯽魚而小. 以體重者爲佳.

곳곳에 그것이 있다. 얇은 물속에서 많이 자라며 잎은 모두 세모이다. 상강 이후에 뿌리를 캐어 껍질과 잔뿌리를 깎아 버린다. 노란색으로 몸체가 무거우며 모양이 붕어 같으나 작다. 몸체가 무거운 것을 좋다고 한다.

①의 "雪中出花(눈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정상적인 한문의 구문 구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 구절은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의 구조이다. 주어는 題目으로 설정된 款冬花이고, 서술어는 出, 목적어는 花, 보어는 雪中이다. 즉 "款冬花(s)+出(p)+花(o)+於雪中(c)"로 문장의 성분이 배열되어야 합당한 구문 구조인데 보어가 서술어 앞에 배합된 경우이다.

②의 문장 역시 주어는 三稜이므로 "三稜(s)+採(p)+根(o)+於霜降後(c)"로 문장의 성분이 배열되어야 합당한 구문 구조이다.

17)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1. p.378.

18) 이 성분은 학자에 따라 補足語, 補充語, 補位, 足語, 副詞性賓語 등의 견해가 다양하다. 필자는 "성분의 어순 배열이 서술어 뒤에 위치하고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어로 처리한다."는 鄭愚相. 漢字語의 生成과 漢文構造(III). 東洋學簡報 3. 檀大出版部. 1985. p.13의 주장을 따른다.

보어가 우리말 어순처럼 서술어 앞에 배합된 또 다른 예는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俗方>에도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吳茱萸】我國，惟慶州有之，他處無.<俗方>

【生薑】我國，惟全州多產焉.<俗方>

‘他處無(다른 곳에는 없다)’의 바른 성분 배열은 ‘無他處’ 이고, ‘全州多產(전주에서 많이 생산된다.)’은 ‘多產於全州’이다. 이러한 우리말 어순의 문장 성분 배열은 신라시대 한문 표기 방법의 하나인 誓記式¹⁹⁾ 표현이다.

요컨대 중국에서 虛詞에 대한 연구는 이미 西周 시대부터 시작하여 漢代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수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唐·宋代를 거쳐 元·明·清代까지 이어져왔다.²⁰⁾ 『東醫寶鑑』이 저술된 17世紀 士大夫들이 쓴 문장(주로 문학과 역사 등 인문학 분야)에는 接續詞, 助詞, 介詞, 語氣詞 등의 사용은 보편적이었고, 참고로 인용한 중국의 문헌에 따라 虛詞가 배합된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은 實詞 위주로 문장을 서술하여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虛詞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²¹⁾

허준은 왜 文法的 關係를 나타내는 虛詞의 사용을 절제하여 문장을 기술하였는가?

한문에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의 생략은 무엇보다 언어 사용의 간결성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의 성분을 들어내려는 의도와 표현하려는 의사를 보다 생동감 있게 들어내기 위해서도 문장성분을 생략한다.

19) 서기식 표기란 1940년 경주 石丈寺址에서 출토된 소위 壬申誓記石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한문의 문장 성분 배열이 국어의 문장 성분 배열과 거의 같다.

20) 許璧, 中國語法學史. 서울, 三聯書店, 1993. p.49.

21) 모든 문장에서 허사를 排除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속사의 경우 역접인 경우에는 반드시 ‘而(그러나)’를 사용하였고, 연접인 경우에도 ‘及(과, 그리고)’을 사용하였다. 【蘭草】葉似麥門冬而闊且韌，長及一二尺，四時常青。(잎은 맥문동과 비슷하나 넓고 또 질기며, 길이는 1-2자나 된다. 사철 항상 푸르다.) 【枳實】木如橘而小(나무는 귤나무와 비슷하나 작다.) 【食茱萸】殺牙齒虫痛，及腸中三虫(치아가 벌레를 먹어 생긴 통증과 장속의 삼충을 죽이고) 【丁香】止霍亂及腎氣，奔豚氣，冷氣腹痛，陰通。(곽란과 신기, 돈분기, 냉기로 배가 아픈 것, 음낭이 아픈 것을 그치게 한다.)

허준이 기술한 문장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허사들을 생략한 것은 무엇보다 허준은 자신의 저서를 참고하는 이는 韓醫學이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와 질병의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음으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虛詞를 배합하지 않고 實詞 만으로도 충분히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 실사 위주의 압축된 문장을 서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의학의 용어나 어떤 원인으로 의해 일어나는 病症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한문의 독해 능력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아니므로 번역할 때 문장 내에 생략된 허사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IV. 結 語

본고는 『東醫寶鑑』에서 인용문 아닌 허준이 기술한 문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기존의 번역서에서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오역된 것을 살펴보았다.

文章의 特性

1. 名詞·代名詞·動詞形·形容詞·副詞 등 즉 實辭 위주로 문장을 기술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接續詞·助詞·語氣詞·介詞 등의 虛辭가 많이 생략되었다.
2. 앞 구절의 서술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서술어가 뒤 구절에서 생략된 경우가 있다.
3.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목적어(보어)는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가 있다.
4. 문장의 보어 성분이 우리말 어순이 다소 보인다.

翻譯의 誤謬

5. 並列接續詞(與·及)가 생략된 문장에서는 ① 대등 관계와 종속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번역한 경우, ② 기간 설정을 잘못된 경우, ③ 대등관계를 원인 관계로 파악하여 번역한 경우 등이 있다.
6. 連接接續詞(則)가 생략된 문장에서는 조건관계인 하나의 구절을 독립된 2개의 구절로 파악한 경우가 있다.

7. 冠形格助詞(之)가 생략된 문장에서는 修飾語와 被修飾語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번역이 있다.
8. 處所介詞(於)가 생략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原因關係의 文句를 對等關係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

V. 參考文獻

<단행본>

1. 許浚, 東醫寶鑑. 1613.
2. 金永勳외 3인 共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pp.1084-1242.
3. 具本泓監修. 한글 完譯本 東醫寶鑑. 서울. 大衆書館. 1994. pp.1306-1471.
4. 최창록 옮김. 완역 東醫寶鑑3. 서울. 푸른사상. 2003. pp.35-447.
5. 趙憲泳·金東日 外十人共譯. 三次 改訂版 原文對譯東醫寶鑑. 서울. 여강. 2005. pp.2709-3214.
6.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p.3275-3642.
7. 윤석희·김형준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서울. 동의보감출판사. 2005. pp.1965-2270.
8.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249. 256. 370. 378.
9. 崔相翼. 漢文解釋講話. 서울. 한울아카데미. 1977. P.427.
10. 許璧. 中國語法學史. 서울. 三聯書店. 1993. p.49.
11. 東醫寶鑑. 인터넷 검색판.

<논문>

1. 鄭愚相. 漢字語의 生成과 漢文構造(III). 東洋學簡報 3. 檀大出版部. 1985. p.13.
2. 金容漢·金永浩·金恩瑕. 東醫寶鑑 翻譯書에 대한 異見 -湯液篇과 草部를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1. pp143-161.